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제 14호 2010년 4월 1일

# SBS 사우회보

발행처 SBS사우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605호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E-mail sbssau@hanmail.net 발행인 임형두 편집인 이시권 편집디자인 이레기획

## SBS 사우회 제 2기 출범, 2012년 2월 까지 임기

임형두 회장 연임, 부회장에 김수용 · 정승화 · 최겸수 3인

### 사우회 정기총회 개최

금년 예산확정 등 주요안건 처리

사단법인 SBS 사우회 제2기가 출범했다. 지난 2월 22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임형두 현 사우회장이 2년 임기의 회장으로 재선출 됐다. 정족수를 훨씬 넘긴 총회에서는 3개의 안건이 사무처가 발의한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부회장에는 최겸수(유임), 김수용(신임), 정승화(신임) 사수가 선임되는 등 회장단의 일부 개편이 이루어졌다. 총회를 마친 다음 근처 식당에서 참석회원들의 회식이 있었다.

SBS 사우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윤세영, 명예고문 신영균, 고문에는 변건, 송도균, 안국정, 우원길, 윤석민, 윤혁기, 최종철, 표재순, 하금열, 등기이사 곽영범, 김수용, 엄광석, 이시권, 임영규, 임형두, 정승화, 최겸수, 운영위원에는 김세웅, 박건삼, 박동주, 박오중, 박재규, 박충, 서상정, 엄효섭, 유용우, 이재명, 이종수, 임종철, 차성모, 최홍철, 황효선이며 기획이사 겸 편집장 이시권, 사무처장 윤충의, 총무 김명철 사수로 구성되었다.

### 2010년도 건강검진 실시

금년도 종합검진이 시작됐다. 본사 임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50% 할인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금년에는 기본검진 30만원, 기본 +정밀검진 40만원의 두 유형으로 실시한다. 배우자도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우회 사무처(783-0591)에 사전 예약을 해야만 된다. 검진병원 6곳은 다음과 같으며 병원별 검진내용은 사우회 카페 (<http://cafe.daum.net/sbss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여의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이대목동병원, 일산병원, 하트스캔

#### SBS 신임 사장 인사

사우회는 SBS의 뿌리, 힘의 원천입니다



우원길 사장

SBS 사우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자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SBS의 오늘을 일궈낸 사우들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3년 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우들 간 여러 활동의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에 늘 마음 든든합니다. 이 모두가 임형두 회장님을 비롯한 사우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SBS는 밴쿠버 올림픽 단독중계를 훌륭히 마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송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받는 선배이자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본사를 위한 고견을 전하시는 데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SBS의 뿌리요, 힘의 원천은 여러분 사우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빕니다.

### 춘계 आय회, 5월에 광릉수목원에서

매년 봄에 열리는 आय회가 5월 15일(토)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강화도 석모도를 다녀왔으며 금년 행사는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와 장소를 면밀하게 검토했고 봄의 향기를 가장 잘 맡을수 있는 광릉수목원으로결정했다. 유쾌한 친목도모의 만남과 푸짐한 먹거리가 마련되는 봄철 आय회를 많이 성원하고 기대해 주기 바란다.

#### 중계방송 시청률 역대최고 기록

## SBS 밴쿠버올림픽 방송 성공리에 마쳐 !

지난 2월13일 막을 올린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6, 은6, 동2개로 동계 스포츠의 강국이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꺾고 종합순위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선수단의 경기를 본 국민들은 그들의 땀과 눈물에 환호와 격려를 보냈다. 특히 김연아의 금메달은 수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끌어 올리는데 일조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그들의 선전모습은 밴쿠버 현지에서 파견된 SBS올림픽 방송단과 국내의 SBS 중계

#### 단독중계 통해 채널선택권 시청자에게 돌려준 의미 커

스태프진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은 노력을 통해 220시간 동안 시청자들에게 전송되었고 국민들은 SBS가 단독중계한 TV앞에서 환호하며 기쁨을 함께 했다. 특히 SBS는 밴쿠버현지에 SBS중계차를 보내 SBS만의 단독중계 화면을 송출해 대한민국 선수단의 분전 모습을 안방에 생생하게 전달했고 단독중계를 통해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인기종목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동계올림픽 시청자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중계제작진의 땀과 노력은 안방에 그대로 전달되어 TV 시청률도 신기록을 세웠는데 김연아 선수의 시상식 장면이 44.7%로 가장 높았고, 쇼트트랙 5,000m 계주와 1,000m 결승 등의 순서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밴쿠버 올림픽 SBS단독중계는 과거 올림픽 중계가 지상파 3사의 똑같은 화면을 시청하며 채널선택권을 뺏겼던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채널 선택권을 시청자들에게 돌려 줬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스포츠 중계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SBS는 3월13일, 밴쿠버에서 개막한 장애인 올림픽대회도 중계방송한 바 있다.



社友 斷想



글/ 박 동 주 사우

## 다시 걸으면 또 다른 시작

봄별이 일렁거리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다. 등 뒤쪽에서 노래 소리가 점점 크게 달려 오더니 씩 하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자전거에 매달아둔 라디오 음악이었다.

참 오랫동안 보는 풍경이다. 몸체보다 큰 배터리에 눌린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고무줄에 칭칭 동여 매여 있었다. 페달 밟는 백발노인의 자전거와 음악은 저만치 멀어져 갔다.

“가만 있자. 저 노래 많이 들었던 추억의 팝송인데 제목이 뭐지? 입안에 뱅뱅 도는데..아! 맞아, 얼 그란트에 「The end」다” 옆서 신청곡을 LP판으로 틀어 주던 신참 PD 시절의 그리움이 떠올랐다. 지글거리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판을 물로 닦기도 하고 행여나 돌아가던 판이 튕까 봐 바늘 윗면에 지그시 동전을 올려놓고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던 노래였다.

‘강의 끝에선 흐르는 물은 멈추지요,  
큰 길을 따라 끝에 서면 더 갈 수 있는 곳은 없지요~’

언뜻 노랫말 끝이 허무함을 느끼게 하지만 절망의 늪을 헤쳐 나가면 희망을 찾게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무지개 끝에 가면 금항아리를 찾게 될 거야~’ 라고..

스치는 바람결에 들게 된 올드 팝 「The end」.. 우연의 일치인가? 옛그제 방송생활을 졸업한 나를 위한 배경음악으로 다가왔다.

“여보게, 왕년의 PD양반! 나도 젊었을 때 옆서 신청곡 무진장 보냈소. 아마도 당신이 한 두번 틀어 줬을거요. 내 자전거에서 들려준 음악은 당신 말년의 축하음악이요. 하하하. 나도 살아 보니까 정년은 끝이 아니고 진짜 인생의 시작이던 것을 알았소” 마치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 듯 백발노인의 모습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간밤에는 거친 꿈을 꾸었는데 둔치에 부는 바람이 아까 보다는 살갑게 느껴졌다.

시작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일까? 벤쿠버 올림픽 증후군 탓일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둔갑해 출발 라인에 섰다.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숨을 들여 마셔도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쿵 광거렸다. 출발 총성이 울렸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금세 편해지면서 신체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더니 초조 불안감이 씻은 듯 꼬리를 내렸고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꿈속에서도 이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참나였다.

“자네 꿈 해몽 해줄까? 꿈 생활의 달인이 되겠어”  
“선배님, 손 놀림 듯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의 달인 인증서를 받으니까?” “이봐, 왕년의 향수병 무조건 깨뜨리고 하나를 둘로 만들기보다 하나를 잘 다스리면 더 바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네. 그게 생활의 달인일세”

이따가 만나 점심 같이 할 이 선배가 틀림없이 꿈 해몽을 이렇게 해줄 것 같다.

한강 둔치에는 심술긋은 겨울을 이겨낸 새 순들이 키재기 하듯 돌아나 있었다. 하늘공원의 풍력발전기도 봄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가고 있었다. 한강둔치를 걸으며 비로소 35여 년의 끝에 서게 된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길에게 물었다.

“길의 끝이 여기 인가?”

길이 답해 준다.

‘거기서 걸음을 멈추면 끝이고 다시 걸으면 시작이라고.’

\* 박동주사우는 2월 말 SBS 뉴스텍 감사자를 끝으로 라디오 PD 생활을 마감했다.

사우 招待詩

## 꿈꾸는 봄

박 의 준 사우

나는 그 누구의봄이 되고 싶다  
마른 가슴에 살얼음 녹이는  
들꽃이 되고 싶다

여름이 되고 싶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가슴으로 안아버린  
바다가 되고 싶다  
나침반 잃어버린 돛단배도 항구에 닿을 내린

가을이 되고 싶다  
버려진다 해도 그 사랑마저 그리워하는  
낙엽이 되고 싶다  
떠날 때 한 번쯤 뒤돌아보는

겨울이 되고 싶다  
누군가 다가와 나를 흔들면  
그 사람 눈망울에  
눈꽃이 되고 싶다  
호~오, 입김만 불어도 투명하게 꽃이 피는

나는, 나는 그 누구의 노래가 되고 싶다  
내가 흘린 땀만 내가 흘린 피와  
내가 흘린 눈물이  
그 누구의 꿈이 되고 싶다

사우 동정



**이영돈**

1월 22일, KBS TV제작본부 교양제작국장에 임명됐다. 또한 2월 24일에는 고려대 언론인교우회가 제정한 제16회 장한 고대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이영돈 사우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13회 넘게 진행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구자길**

SBS방송아카데미 TV영상제작과정 과 방송기술 과정 담임교수직을 맡았다. 구자길 사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강사로도 나가고 있다.



**엄광석**

자신의 출신교 용산고등학교 미술반 출신들의 모임인 용미회(龍美會) 회장으로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용미회 부활전」 전시회를 가졌다. 엄광석 사우는 국민회 망포럼 정책연구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재운**

1월 29일, YTN 뉴욕지국장에 임명되었으며 미국발 소식을 직접 리포트하고 있다.



**김병욱**

GS 홀쇼핑 상무인 김병욱 사우가 연초에 신설된 인도사업본부에 맡아 해외근무를 위해 출국했다.



**서영철**

2월 22일, 2011 대구세 계육상대회 조직위원회 미디어 지원부장(2급)에 임명됐다.



**홍성완**

2월 25일, 한양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한양언론인회' 제 8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박준영**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 국악방송 시장에 임명되었다. 국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개국한 국악 전문방송(FM99.1MHz)이며 그동안 비상임 이사장 체제로 운영돼 오다가 방송개국 9주년을 맞은 올해, 상임 사장제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임기는 3년이다.



**황효선**

3월 17일, 2010년도 SBS 시청자위원회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1년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럼 자문위원회에 위촉되기도 했다.



**이근용**

일주일 내내 한국방송예술진흥원과 신설된 경기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교육원 강의를 맡아 분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쁨이 넘친다고



**장상훈**

48년된 통조림 회사 '동표'을지로 골뱅이'를 인수하여 경영 중인 장상훈 사우가 경북 영덕에 있는 공장을 강원도 속초로 이전하게 되었다. 방송제작 프로덕션 운영보다 쉽지 않지만 동업종 최고 회사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김백**

3월 19일, YTN 보도국장에서 보도담당 상무 이사로 승진보임 됐다.



**심종환**

한국정책방송(KTV)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40분간 방송되는 "현장출동. 국민속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새로 맡았다.

경 조 사 항

■ 부음

1월 7일 정영덕 빙모상      2월 12일 장동훈 부친상  
3월 19일 공영화 부친상

■ 결혼

2월 17일 권영범 처남      3월 4일 임상길 장녀  
3월 14일 이태원 장남

■ 고회 축하금 전달(20만원)

3월 3일 이혜성



동호회 상반기 계획

<골프동호회>

회장 이충기 / 총무 천영일

4월 29일 춘계대회  
(천안, IMG내셔널 CC) 3팀

<낚시동호회>

회장 임종철 / 총무 김명철

6월 5일(토) 상반기 바다낚시  
(인천 연안부두 인근)

<등산동호회>

회장 유용우 / 총무 성준호

- 3월 13일 (토) 청계산 · 4월 10일 (토) 인왕산
- 5월 8일 (토) 우면산 · 6월 12일 (토) 북한산



<문화예술동호회>

회장 이재명 / 총무 김정민

- 3월 16일(화) 뮤지컬 "미스 사이공" (고양아람누리)
- 3월 23일(화)/24일(수) 연극 "낮잠" (삼성동 백암아트홀)
- 5월 중 영화관람 (강남 시티극장)

<바둑동호회>

회장 엄광석 / 총무 박오중

- 2월 26일(금) 춘계바둑대회 (사우회 사무실)
- 6월 25일(금) 하계바둑대회 (사우회 사무실)



<트레킹동호회>

회장 박건삼 / 총무 이찬휘

- 1월 16일(토) 창덕궁
- 2월 27일(토) 일산 호수공원
- 3월 27일(토) 남한산성
- 4월 24일(토) 서울 남산
- 5월 21~23(2박3일) 제주 올레길
- 6월 26일(토) 강화도



■ 사우회 카페 가입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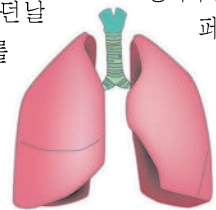
사우회원들의 만남의 광장인 카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우회의 각종 안내와 정보를 받고 있으나 많은 회원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어 다시 안내합니다. 인터넷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sbsau>이며 [www.daum.net](http://www.daum.net)에 회원가입하여 소식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찬휘 사우의 건강 다이어스트

저, 폐암 걸러 봤어요

최근 제가잘 알고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일이 잦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올 때 마다하루하루를 새롭고 알차게 보내야겠다고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지난달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폐암 특집을 취재하던 날이었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환자 인터뷰를 하고 제 폐를 CT로 촬영했습니다. 토요일모닝와이드에 방송되는 "이찬휘 기자의 건강테크"는 제가 취재현장에 취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성으로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진을 받는 모습과 재현하는 모습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폐암 검사에 필수인 폐 CT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판독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옆방인데 왜 이리 늦을까?' '갑자기 급한 환자가 왔다?'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 쯤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모습이이상했습니다. 온 몸이땀으로 흠뻑 젖었고진뜽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더듬더듬말을 했습니다. "이 기자님!! 이상한 게 있어요." 순간 나는 '내가폐암에 걸렸구나'라고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말도 안



나왔습니다. 취재를 같이 나온 PD와 카메라맨도 완전히 얼굴이 굳어 얼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용기를 내서 "얼마나큰데요?" 라고물었습니다. 의사는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주먹만 해요. 지금 당장 입원해서정밀검사하고 빨리 수술 받아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폐암이구나. 주먹만 하다면 3기는 뵈겠네.'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짧은 순간 집사람과 아이들 생각이 제일 먼저 지나갔습니다. 내가 없으면 못살텐데!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이 뒤를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늘 노심초사신데얼마나 슬퍼하실까?' 동생들의모습도 지나갔습니다. '다시 방송을 하게 돼 참 행복했는데어쩌나?' 나와 같이 방송하는 식구들은어떻게 해? '토요일모닝은어쩌구?' 이 생각 저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50 평생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듯 흘러갔습니다.

그 때 의사선생님이판독기 앞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자력병원에서 폐암 판독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도 와 있었습니다. 원자력병원이 완전 준비상에 걸렸습니다. 취재 나왔던 기자가 폐암에 걸렸으니 말입니다. 판독기 앞으로 가려는데 발이 떨어지지않았습니다. 사형선고 받으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몇 발작을 걸으면서도 '8년 전에 담배 끊었는데 그전에 피웠던게 문제였구나'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나쁜 행동과 마음 때문일지도 몰라 온갖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판독 컴퓨터에 앉은 선생님이제 이름을 불러

폐의 모습이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구 이제 어찌나?'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남은 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밀밀듯 스쳐갔습니다. '내 남은 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때 화면을 들여다보던 판독 전문 선생님이 "없네. 없어요."라고 외쳤습니다. 옆에 앉았던 의사가 "어, 정말 없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푹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갈 때가 안됐군요.' '그동안 지은 거 다 갚고오라시나 보다.' 불과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지옥과 천국을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CT를 촬영한다니까 담당 의사선생님은 미리보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CT실에서 촬영이 끝났다고 통보를받자마자 컴퓨터에 제 이름을 쳤는데 병원의 컴퓨터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불안한 상태였나 봅니다. 제 바로 앞에서 촬영한 폐암 환자의 사진이 의사의 컴퓨터 화면에 올라 온 것이었죠.

건강 의학기자로 많은 것을 보고 체험도 했지만 이번 체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암 선고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순간적이긴 했지만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고 반성과 후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필자 / SBS, SBS CNBC 의학전문기자

중신회비 내신 회원 (2006년 9월~현재, 각 20만원)

- 강영권, 강인식, 강형배, 고장석, 공영화, 곽재석, 곽재성, 구자걸, 권오형, 김백, 김경환, 김근수, 김명중, 김벽수, 김병욱, 김병욱(예), 김세웅, 김수웅, 김영란, 김우경, 김육중, 김익성, 김장년, 김재백, 김정민, 김정택, 김진나, 김진원, 김충겸, 김한모, 문정수, 박동주, 박봉곤, 박오중, 박의준, 박정준, 박종성, 박준영, 박진석, 박찬근, 박중, 박호중, 박희재, 변건, 변영우, 변장부, 서영철, 성준호, 손양덕, 송도균, 송선무, 신계균, 신선미, 신완수, 신중섭, 안경환, 안국정, 안승달, 엄경섭, 엄광석, 연태홍, 오진곤, 오창근

- 유용우, 유철용, 윤영목, 윤충의, 윤혁기, 윤희훈, 이계진, 이관형, 이남기, 이무열, 이상훈, 이선명, 이성규, 이상연, 이시권, 이용모, 이은범, 이재명, 이정섭, 이준실, 이진용, 이찬휘, 이창섭, 이충기, 이태원, 이혜성, 임근배, 임승순, 임형두, 장동철, 장상훈, 장영국, 장윤정, 장형일, 정건일, 정승화, 정영덕, 정완식, 정운채, 정진기, 조원민, 조유경, 조향현, 주동원, 지식원, 차성모, 최중철, 최홍철, 표재순, 한성주, 함창호, 허원제, 현일범, 홍상우, 홍성완, 홍성주, 홍용락, 홍충태, 황치황, 황효선 (총 123명)

연회비 내신 회원 (1월 ~ 3월, 각 2만원)

- 김학태, 김홍덕, 노기운, 성준기, 신영애, 신용필, 윤두병, 임상길, 임영규, 조병식, 조현용, 주일청

■ 회비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6-901-277104  
예금주 : (사) 에스비에스사우회



단 신

본사 김광진 차장에 감사패 증정

2월 22일, 사우회 총회 행사장에서 본사 총무팀 김광진 차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광진 차장은 SBS사우회가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사우회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미래기획팀 회의, 동호회 총무 모임 개최

사우회 젊은 회원들로 구성된 미래기획팀 두 번째 회의가 2월 4일 개최됐다. 사우회 발전에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를 카페란에 올리기로 했으며 연말로 예정된 본사 홈커밍데이 진행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3월 10일에는 동호회 총무 모임을 열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총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금년도 운영방향에 대한 동호회별 계획을 청취했다.

2010년도 사우회원 수첩 발행

사우회원 수첩이 4월에 발행된다. 사진,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수록되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주소, 전화번호 변경시 연락주세요

주소, 전화번호, 직책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사무처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전화 02-783-0590~1 또는 이메일 sbssau@hanmail.net 을 이용바랍니다.

본사 소식

SBS! 새 드라마 5편으로 드라마왕국 부활 노력!

SBS는 3월 22일(화) 새 아침드라마 <당돌한 여자>를 시작으로 3월 13일(토) 주말 드라마 <이웃집 웬수>, 3월 20일 부터 김수현 작가, 정을영 PD 콤비가 제작하는 <인생은 아름다워>, 3월 22일 첫 방송된 <오마이 레이디> 그리고 3월31일부터는 <검사 프린세스>를 시작했다.

<당돌한 여자>는 친구로 시작해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되고, 다시 고부간이 되는 '오묘한여자들의 질긴 인연'을 그린 작품으로 20살이 넘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일콩달콩한 사랑을 펼친다. 주말 안방극장으로 찾아가는 <이웃집 웬수>는 손현주와 유효정이 7년만에 다시 부부로 만나 '결혼은 지켜야 하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이혼 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게 바람직한가?' 라는 주제로 부부호흡을 맞춘다. 한편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며 수많은 히트 작품을 내놓은 김수현 작가가 정을영 감독과 손잡고 만드는 <인생은 아름다워>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일상을 그린 따뜻하고 유쾌한 가족드라마이다. 따라서 제주도 올 로케로 촬영이 진행되어 더욱 사실적인 리얼리티가 살아나고 있다. <오마이레이디>는 초보 아줌마 매니저 채림이 까칠한 꽃미남 스타를 기들이면서 한국 아줌마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드라마다. 아줌마 매니저 채림에게 발목이 잡히는 톱스타 성민우역에는 최시원이, 채림이 일하는 뮤지컬 제작사 대표역에는 이현우가 연기한다. <검사 프린세스>는 <식객>과 <아이리스>에서 상이한 캐릭터를 연기한 김소연이여검사로 열연을 펼친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찬란한 유산>의 명콤비 진혁 PD와 소현경 작가가 다시 한번 손잡고 만드는 작품으로 방송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초임 여검사 마혜리(김소연)의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로 박시후, 한정수, 유건 등이 함께 등장하고 아나운서 출신 연기자 최송현은 이번 드라마에서 마혜리의 선배검사 진정선 역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SBS는 월화드라마 <제중원을 제외하고 새 드라마 5편으로 새롭게 라인업을 짜고 드라마 왕국 부활에 나섰다.



www.sbsnewtech.co.kr



TV 영상·제작·기술 전문회사 SBS뉴스텍이 방통융합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중계기술 - 대형행사의 중계차와 중계 카메라를 운영합니다.
- 뉴스제작 - 뉴스 진행 및 송출과 해외 위성 송수신을 책임집니다.
- 영상제작 - 드라마 야외촬영과 특수촬영을 전문으로 합니다.
- 영상취재 - 뉴스 현장의 진실을 촬영합니다.
- 영상편집 - 취재된 영상과 자료화면을 선택하여 편집합니다.
- 보도CG - 상상의 세계를 그래픽으로 표현합니다.
- 전략사업 - 방송 기술 SI 사업과 영상 사업을 총괄합니다.

대표전화 (02) 2113-5999

중계차 임대 / 해외위성 송수신 / 방식변환 / 야외촬영 / 특수촬영 / 3D 컴퓨터그래픽 / HD 방송시스템 구축 / IT 네트워크 / 멀티미디어 A/V 시스템

SBS Newstech 뉴스텍 www.sbsnewtech.co.kr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SBS 방송센터